

국내 통정

양성자가속기부지선정위 첫 회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에 따라 경주에 설치되는 양성자가속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이하 양성자가속기사업이라 함)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성타 불국사 회주)가 1월 10일(화) 출범, 경주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로 40만~60만 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두 번째 회의에서 부지선정 평가기준 및 절차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1월 31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양성자가속기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위원장인 성타 스님은 “양성자가속기사업 부지 선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

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예정인 만큼 어느 곳으로 결정되든 시민들이 수용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자가속기사업단이 제시한 부지선정 기준은 공원지정 구역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신청 대상지와 성토·매립지를 제외한 ▲직선거리가 1천 100m × 400m 가능부지 ▲전력 공급(100MVA 경우 154KV) 및 하루 1천t의 용수공급 가능 지역 ▲고속전철 및 주요 도로로부터 접근성과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가능한 곳으로서 고분군과 유물 산포지 등 확인된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제외된다.

-내용출처 : 2006. 1. 11 매일경제

특구R&D과제 5개 신규 발굴

대덕연구개발(R&D)특구에 연내 나노기술(NT), 생명공학(BT), 방사선기술(RT) 등 전문 클러스터별 비즈니스 허브센터가 조성된다. 또 클러스터별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5개 이상의 특구연구개발과제가 추가로 발굴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06년도 대덕특구육성사업계획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덕특구본부는 올해 성과 사업화 및 경영지원사업(97억원), 특구연구개발사업(83억원), 교육 및 인력 양성사업(12억원), 국제화지원사업(6억원) 등에 총 1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성과 사업화 및 경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문 클러스터별 비즈니스 허브센터 구축 사업이다. 이를 위해 NT·BT·RT 등 3대 산업을 전략 분야로 정하고 ▲제2 원자력밸리

조성 ▲나노종합랩센터내 입주 기업 공간 증설 ▲바이오지원센터 증축 등 3대 사업에 총 60억원의 예산을 지원, 클러스터별 인프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구본부는 또한 지난해 5개 과제(33억원 지원)를 발굴한데 이어 오는 상반기 중에 5개 이상(50억원)의 신규 과제를 추가로 발굴, 지원키로 했다. 특구내 연구구성과 사업화를 위해 ▲대덕 커넥트 프로그램 운영 ▲연구소기업 및 첨단벤처기업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 ▲전문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술사업화 전문 인력 및 전문 마케터 양성을 위해 경영 교육과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해외 클러스터간 교류협력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송낙경 사업지원단장은 “대덕특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산업의 강점을 살려 특성화하는데 주력하겠다”며 “3대 전략분야는 특구에 꼭 필요한 분야인지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내용출처 : 2006. 1. 3 전자신문

국산 환경방사선 감시기 첫 수출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개발한 첨단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처음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12월 30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덕특구의 벤처기업 (주)쎄트렉아이는 최근 첨단 환경방사선 감시기 EFRD를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ATSB에 공급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내년 착수하는 국가환경방사선 감시망 구축 1단계 사업에 필요한 감시

기 6기를 조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쎄트렉아이는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가 2007년도부터 감시망 확대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 30기의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내용출처 : 2005. 12. 30 연합뉴스

해외 동정

중국의 핵 응용기술 산업발전 가속도 붙는다

중국 핵공업 발전의 주요 구성부분으로서 동위원소 제품, 방사 가공, 핵 측정기구 설비, 원자로 기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중국 핵 응용기술 산업이 제11차 5개년 기간동안 한층 빠른 발전속도를 보일 것이다.

핵 응용기술은 핵무기와 원자력 외에 원자핵 과학기술과 정보, 재료, 의학, 생물, 환경 등 학과를 교차 융합하여 공업, 농업, 의료위생, 환경보호, 자원탐사와 대중안전 분야의 하이테크에 응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반도체 가공, 의료 방사 조영, 방사 치료, 식품 가공, 고분자 방사 가공, 방사 육종, 동위원소 및 측정기기 등 핵 응용기술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핵기술 개발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는 약 300여 개소나 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핵 응용기술은 여전히 산업화 초기단계에 처해 있으며 산업규모와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은 여전히 비교적 작다. 선진국들과 비해 볼 때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동위원소 제품 종류는 선진국의 10% 밖에 안되며 매우 많은 대형의 핵 의료설비들은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공업 방사 가속기도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방사 화공제품 품종이 적고 규모가 작으며 기술함량이 높지 못하

다. 2004년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핵 응용기술산업을 하이테크발전 중점 산업으로 선정하고 5년 동안 산업 규모를 1천억 위안으로 확대하며 2020년에 4천억 위안으로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중국 핵공업그룹사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제10차 5개년 기간 동안 산업화 조건을 갖춘 핵 응용기술 성과를 축적하였으며 현재 이미 해수 담수화에 응용될 수 있는 신형의 핵 에너지 장비, 실용형 폭발물 검사 장치, 휴대용 매질 분석기, 화상 치료에 쓰이는 수 겔 봉대, 높은 공률의 방사 가속기, 뼈 종양 치료약물, 폐수 생물처리 장비 등 연구개발을 기본적으로 완성하였다. 이런 성과들은 기술함량이 높고 시장잠재력이 크며 중국의 핵 응용 기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보장을 제공하였다.

중국의 핵 응용기술산업의 중견 역량으로서 중국 핵 공업그룹사는 2005년까지 핵 응용기술산업 총자산이 20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판매수입 15.5억 위안을 실현하였다. 그룹사의 관련책임자는 “핵 응용기술산업은 제11차 5개년 기간의 새로운 성장점으로서 중국의 핵 응용기술산업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며 국내에 필요한 동위원소 원료 공급의 국산화 문제를 기본적으로